

**불평등에
맞서는**

**정의로운
기후시민
되기**





목차

1. 문제 Problem | 기후위기가 불평등의 문제라고?

- 활동 1. —— "내가 기후난민이 된다면?" 공감활동 04
- 활동 2. —— "나는 어디에 서있나요?" 감각활동 06
- 활동 3. ——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나무" 분석활동 12

2. 해결 Solution | 우리는 기후정의로 간다!

1) 공공의 자원 보장하고 평등 만들기

- 활동 4. —— "필수자원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 체크활동 14

2)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국제사회, 이걸 어쩐다?

- 활동 5. —— "움직여라, 국제사회!" 쓰기활동 16

3) 세상 바꾸기! 그런데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

- 활동 6. ——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보자" 스포큰워드활동 18

- ★ 참고읽기자료 목록 19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기후위기’는 이제 낯설지 않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폭염과 폭우, 가뭄 등 우리는 현실에서 심상치 않은 기후위기의 현상들을 직접 보고 겪기도 하지만, 여전히 기후위기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피해나 전쟁 혹은 갈등은 먼 나라의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해요.

한번 상상해볼까요?

내가 지금 당장 ‘기후난민’이 되어서 필요한 짐만 싸서 살던 곳을 급하게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까요? 집으로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나와 친한 친구들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고, 위험과 불편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막막하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 최악의 가뭄 사태를 겪고있는 마다가스카르의 남부 지역
©Pierrot Men for Amnesty Interna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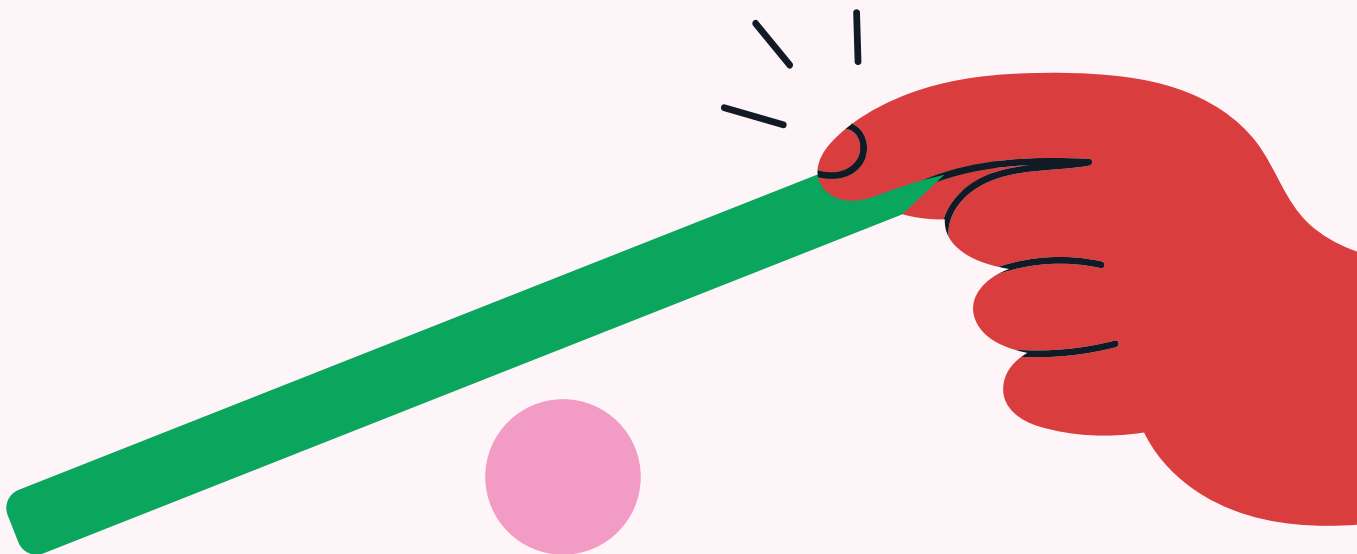
내가 기후난민이 된다면?

심각한 기후위기로 더 이상 한국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내일 당장 급하게 다른 나라로 떠나는 나의 이야기를 <빈 칸 일기장>에 작성하고
나눠보아요.

- * 나는 내일 ()와 함께 한국을 떠날 예정이다.
한국은 기후위기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 * 짐을 많이 가져갈 수 없다고 해서 ()을/를
배낭에 넣었다.
- * 나는 ()로/으로 떠날 계획이다. ()을/를
타고 이동하면, 대략 이동 시간은 () 정도 걸릴 것이다.
- * 그 곳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가더라도 나는 ()이 걱정된다.
- * 그런데 만약 그곳에 가지도 못한다면,
그 다음 계획은 ()이다.
- * 한국을 떠나기 하루 전인 지금,
나의 기분은 ()다/이다.

기후위기가 심화시키는 불평등

기후위기는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 전체의 위기지만, 모두가 똑같은 수준으로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도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계 인구의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은 지난 25년 동안 가난한 50%의 사람들 보다 2배 많은 탄소를 사용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겪는 사람도 있고, 전혀 피해를 겪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제도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합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나요?



※ 당신은 어떤 캐릭터였나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 _____

※ 다른 캐릭터와 점점 벌어지는 거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들었나요?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 _____

※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캐릭터 간 거리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 _____

※ 자신의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인상깊었던 캐릭터가 있었나요? 이유는?

→ _____

※ 진행자가 읽어준 문장 중 가장 인상깊었던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이유는?

→ _____

※ 한 걸음 나아가야 할지, 그대로 있어야 할지 주저한 적이 있었나요? 이유는?

→ _____

※ 여러 캐릭터 중에 기후위기에 덜 영향받고 더 영향받는 캐릭터가 있었나요?

→ _____

※ 캐릭터 간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 _____

※ 실제로 내가 해당된다면 왼쪽 박스에 체크해보세요.

- ☐ 나는 폭우나 폭염이 오더라도 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 ☐ 나는 폭우, 폭염, 혹한 등 극심한 이상기후가 있더라도 건강과 생계에 지장이 없다.
- ☐ 나는 홍수, 쓰나미, 산불 같은 자연재해를 겪더라도 생계수단을 잃지 않을 수 있다.
- ☐ 나는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충분하고 양질의 물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다.
- ☐ 나는 기후변화를 이유로 내 집, 내 고향, 내 나라를 떠날 필요가 없다.
- ☐ 나는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 ☐ 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바이러스와 질병(말리리아 영양실조 설사병과 열 스트레스 등)의 위협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 ☐ 나는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 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 ☐ 나는 탄소배출 산업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만 그 부작용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나는 재해와 재난 발생 시 희생양 찾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의 타겟이 되지 않는다.
- ☐ 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겪는 피해를 인터넷이나 TV, 기사로 주로 접한다.
- ☐ 나는 전쟁이나 폭력의 위협에 처해있지 않다.
- ☐ 나는 나의 정체성,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
- ☐ 나는 나와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 나는 나의 일상에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탄소사용 제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움직임 활동을 하기에 공간이 좁다면,
다음의 무지개 판에서 캐릭터 카드를 이동시켜보세요.



검정색	
회색	
보라색	
연보라색	
남색	
청록색	
파랑색	
초록색	
연두색	
노란색	
주황색	
살구색	
빨간색	
분홍색	
출발!	

기후위기가 불평등의 문제라고?

젠더 불평등

여성 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구조와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제한된 역할과 노동을 수행하는데, 특히 자연에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들이 많아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성들이 가사 및 돌봄 노동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 같은 재난과 재해를 겪더라도 여성들은 더 과중한 노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 여성들은 기존의 가사 및 돌봄 노동 외에도 생계를 위해 다른 노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경제권과 재산 소유권 등을 가지지 못하기에 기후변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못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재난의 여파로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여성들, 특히 나이가 어린 여성, 장애가 있거나 빈곤에 처한 여성들은 성폭력과 성착취, 강제 조혼과 같이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지역 간 불평등

특정 지역은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상이변과 함께 해수면 상승과 해안 침식은 해안 및 섬 공동체의 삶, 생계 및 문화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뿐 아니라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도 특정 지역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빈곤한 지역, 국가비상사태 등 불안정한 정치상황, 기본 사회 서비스 및 자원이 부족한 지역, 분쟁이 계속되는 지역, 소규모 농업, 목축업, 어촌 공동체 등 기후에 민감한 생계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한편, 전 세계 탄소의 80%는 주요 20개국(G20)이 배출하지만, 상대적으로 빈곤한 나라에서 전체 기후 피해의 약 75%가 발생합니다. 빈곤한 나라는 탄소 배출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가볍지만, 기후 위험에 더 노출되어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경제적 불평등 / 계층 간 불평등

세계 인구의 최상위 부유층 1%는 지난 25년 동안 가난한 50%보다 2배 많은 탄소를 사용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도 가

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더 큽니다. 부유한 사람은 위험에서 피할 자원과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받거나 대비책을 세울 수 없어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빈곤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기후변화의 가장 큰 부담은 빈곤층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빈곤을 심화시킵니다. 수억 명이 식량 불안정, 강제 이주, 질병 및 사망에 직면할 것입니다.

나이에 따른 불평등 / 세대 간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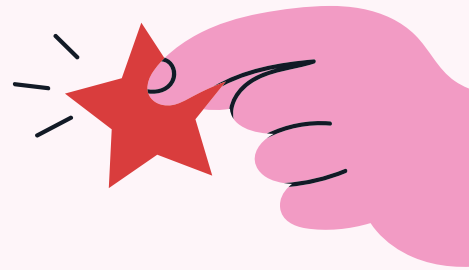
어린이와 노인들은 특히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 증가, 강수 패턴의 변화, 식량 및 물 부족, 전염병 전파 증가는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 생명, 식량, 물 및 위생, 주거, 문화 모든 것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아동은 고아가 되거나 가족과 분리되어 폭력, 신체적 학대, 아동 노동, 인신매매 및 착취의 희생자가 될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막으려면 현재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그들의 조부모 세대가 쓰고 누리기 위해 배출한 탄소량에 비해 단지 6분의 1 정도만을 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배출하지 않은 온실가스 때문에 보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2021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6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7배나 더 많은 폭염, 2배 더 많은 산불, 거의 3배나 많은 가뭄, 홍수, 기근이 일어나는 지구에서 살 게 될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젊은 세대는 기후위기 대응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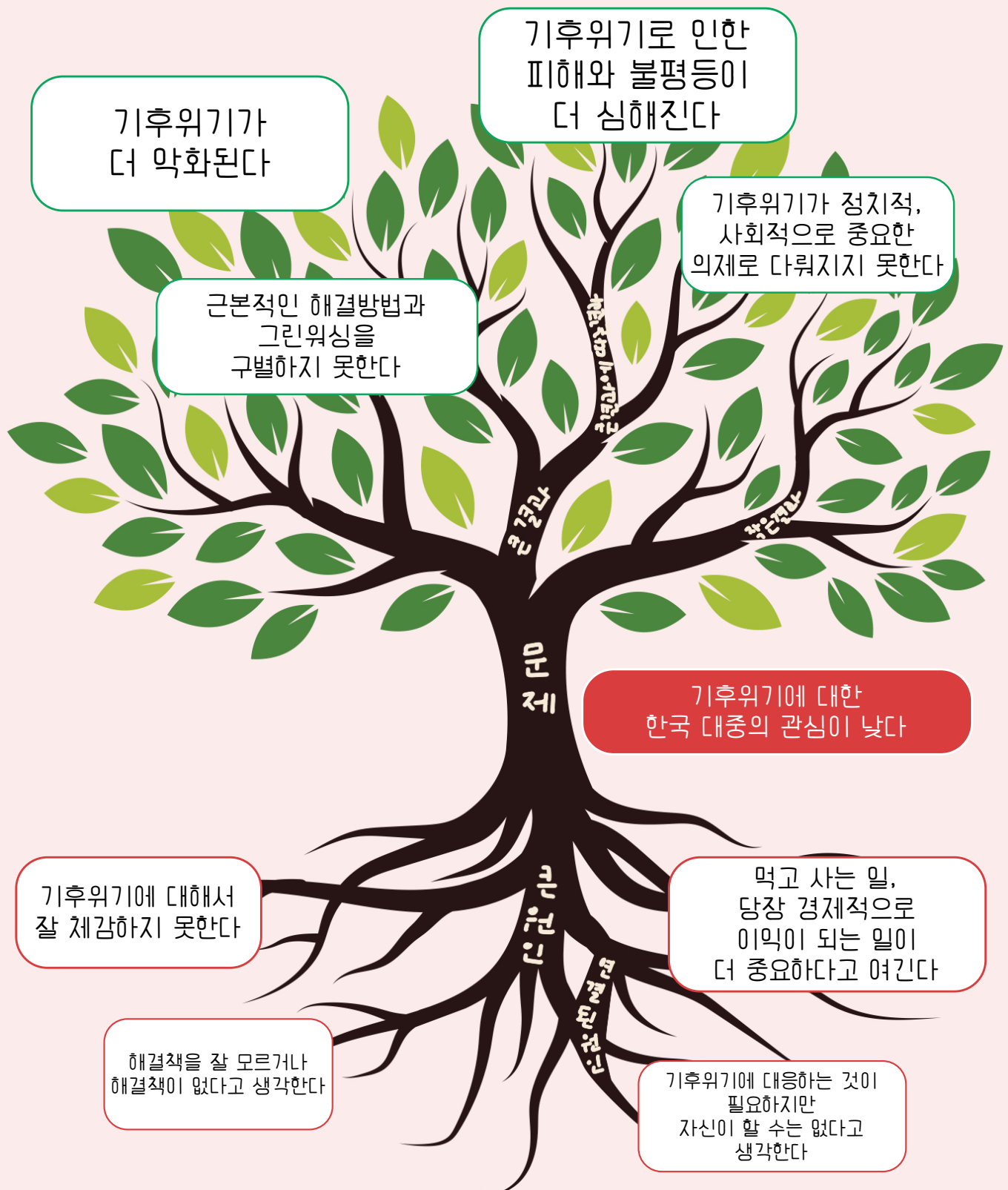
모든 국가에서 성별, 민족, 장애, 소득 등에 기반하여 소외, 배제되고 차별받고 불평등을 경험하는 소수자들은 기후변화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인종 차별에 직면한 커뮤니티와 소수 민족, 종교 및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 민족은 의사 결정 공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및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외진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전기 등이 부족하고 지역의 산업화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탄소배출을 많이 하지 않지만, 지리적 요건 때문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전통적인 토지에서 자연환경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선주민과 그러한 지역의 주민들 또한 기

후변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의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이들의 권리와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 및 채택됩니다. 장애인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큼니다. 이미 적절한 주거, 교육, 의료, 음식, 물 및 위생 시설에 접근하는 것에 장벽이 있는 장애인에게 더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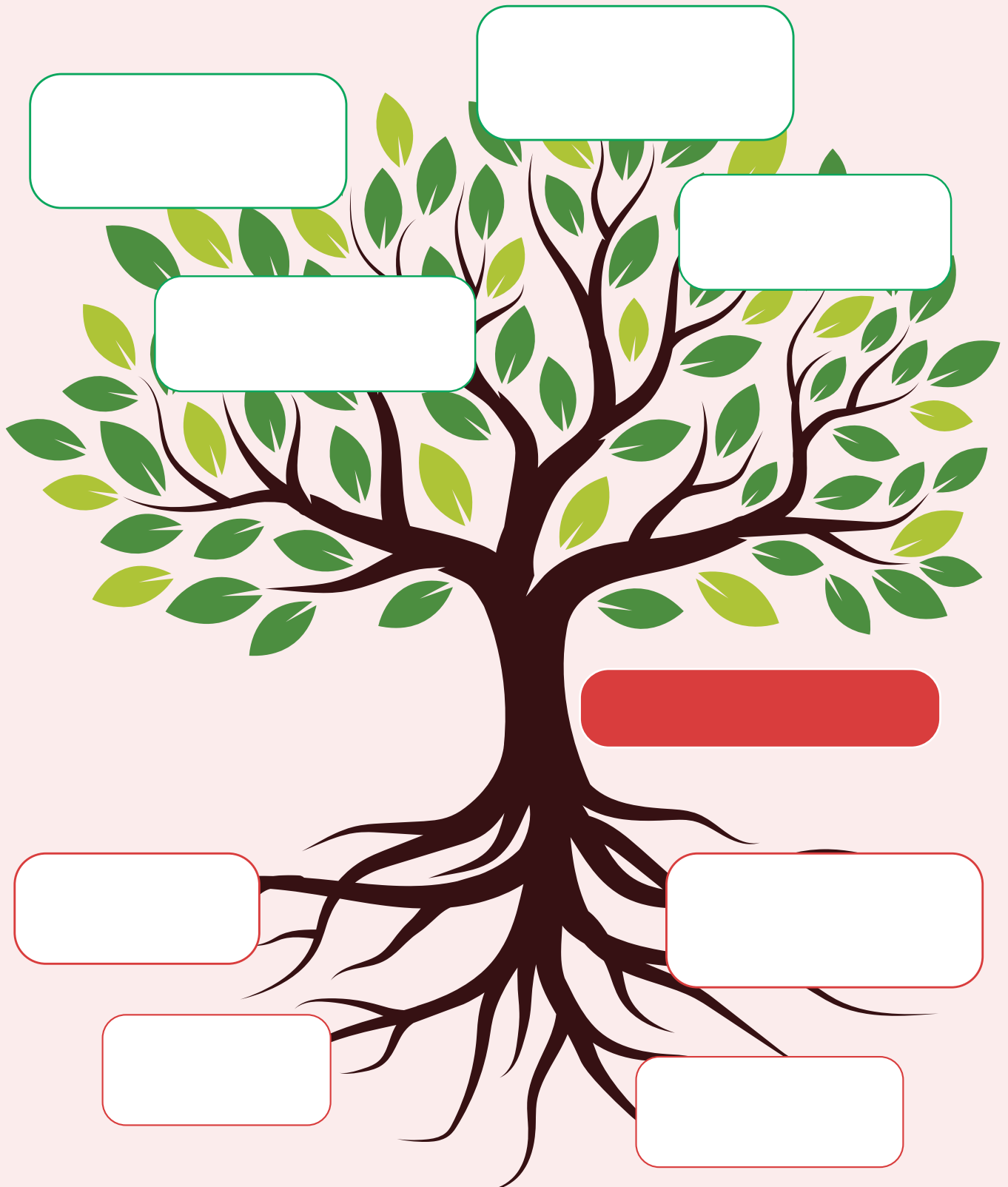
[참고기사: \[한겨레\] 가난하거나 어리거나...기후위기와 불평등은 얹혀 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나무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나무



“필수자원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

물, 전기와 같은 자원이나 의료, 교통과 같은 서비스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적인 것들이 충분히 갖춰진 사회에서는 당연한 공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편 평등하지 않은 사회일수록 이와 같은 자원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고르게 누리기 어렵습니다.

'활동2: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에서 말했던 캐릭터의 입장이 되어 다음의 표에 체크해 보세요. “평소에 물이나 전기를 사용하고, 병원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나요?”

내가 평소에 이것을 이용(사용)하는 것은~	매우 편하다	편하다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언제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몸을 씻거나 뭔가를(음식, 물건 등) 세척하기에 충분한 물 				
전기 				
의료 서비스(병원, 보건소, 약국 등) 				
교통(목적한 곳까지 이동하기에 불편함-교통수단 유무, 비용 등-이 있는지) 				
필수노동 서비스 (우편, 택배, 위생 등) 				
돌봄노동 서비스 (양육, 간호 등) 				

✱ 이러한 필수 자원들을 이용하기에 더 어려운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 _____

✱ 이러한 필수 자원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 _____



나에게도 꼭 필요한 것들! 잘 체크해보셨나요?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크고, 심한 경우에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필수적인 자원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것일수록 민간 시장의 영역에서 경쟁을 통해 비싸게 거래되는 방식 보다는, 사회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과 정부, 지역사회 등이 함께 관리하면서 누구나 공공의 자원을 쉽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편지를 써보자!

편지를 받을 대상을 쓰세요.

편지를 쓰는 자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합니다.

기후위기의 문제점/우려사항을 요약하여 쓰세요.

(예를 들어, “저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저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려하는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이어, 여러분이 바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기후위기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하는 나라의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후재난 피해국에 지원금을 지금 당장 주기를 요청합니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답장을 요구하는 문구를 포함시켜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방법을 마련할 것인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어떤 조치를 하실지에 관한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쓴 날짜와 함께, 답장을 받을 연락처를 쓰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거나 서명하세요.



*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 기후행동'의 캠페인 모습 ©청소년 기후행동

A larg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light blue lines, resembling a piece of lined paper. A yellow rectangular sticky note is attached to the top right corner of the paper. The paper has a slightly wavy, torn-edge appearance.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위원회를 구성해보자"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한 줄 선언문' 작성하고 표현하기, 서로 지지하고 지지받기

내가 선택한 역할은 어떤 사람인가요?

위의 사람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적어보세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나만의 한 줄 선언문'을 적고 '스포큰 워드'의 방식으로 읽고 나눠봅시다.

("나는 ~을 원합니다.", "나는 ~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의 형식으로 써보세요)

* 스포큰 워드(spoken word): '말로 쓰는 글', 또는 '말로 쓰는 시'. 이야기 풀이의 미학에 초점을 두는 시문학이며, 재치 있는 언어의 기술(word play)과 억양 등에 초점을 맞추는 말하기 예술(oral art) 장르를 말합니다.(출처: 위키백과)

- 스포큰 워드 예시 영상 보기

- [말하는 오후](#)
- [최선과 열정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꾼 '소울리스좌'](#)
- [마틴 루터킹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읽기 자료

‘기후위기’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면,

[\[국제앰네스티\] 기후위기에 맞서는 유스를 위한 액션툴킷](#)을 활용해보세요

‘기후난민’

[\[YTN\] 전쟁만큼 무서운 기후변화... '기후난민' 확산](#)

[\[국가환경교육센터\] 기후난민을 아시나요?](#)

[\[위키백과\] 생태학적 난민](#)

[\[경향신문\] 기후 난민 확산, 나라 안 따진다](#)

‘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들

[\[OECD iLibrary\] 모두가 함께 하기: 불평등성이 낮을 수록 모두가 혜택을 받는 이유](#)

[\[KDI 경제정보센터\] 불평등, 지표로 보는 10년](#)

[\[OXFAM 2022 불평등 보고서\] 죽음을 부르는 불평등](#)

[\[국제앰네스티\] 혐오에 맞서는 유스를 위한 액션툴킷](#)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후변화의 인간화](#)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교수)

[\[국제앰네스티\] 기후위기 유스 액션 프로젝트](#)

- 기후위기는 왜 인권위기인가?(이송희일 영화감독)

- 캠페인 트레이닝: 예술로 행동하기(쭈야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